



SmartWhistle

윤리경영 Newsletter 2018년 5월호

1. 최근 동향 및 소식

- 윤리경영 정점 'ISO 37001' 제약사, 올 상반기 9개 이른다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감사관회의 개최
- '자금세탁 위험평가 구축' 최종단계

2. 윤리경영 실천 사례

- [지멘스] 투명 윤리경영

3. 청렴 위반 사례

- 하자품 합격 처리 부당지시
- 특정업체 물품 구매 지시

4. 지식마당

- '이익+사회공헌' 공유가치를 창출하라

5. Quiz

6. 관련 행사 및 독자 의견



최근 동향 및 소식

1. 윤리경영 정점 'ISO 37001' 제약사, 올 상반기 9개 이른다

부패경영방지시스템 국제표준(ISO 37001) 인증 제약사가 올해 내로 10여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GC녹십자가 이달 내로, 대웅제약·대원제약·동아에스티·일동제약·JW중외제약 등 5개 제약사가 내달까지 ISO 37001 인증을 완료할 예정이다.

ISO 37001은 162개국에 참여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6년 10월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이다.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구, 기업체 등 다양한 조직이 반부패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집행·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고안됐다.

이에 제약업계에서는 협회 주도 하에 지난해 10월 ISO 37001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까지 한미약품과 유한양행, 코오롱제약이 인증을 받았다.

종근당·보령제약·삼진제약·휴온스글로벌·명인제약·안국약품·동구바이오제약 등 7개사도 최근 내부 심사원 양성교육을 마치는 등 인증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ISO 37001 도입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감이 적잖다”며 “인증기업이 잇달아 나오는 것은 윤리경영에 대한 업계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http://www.ajunews.com/view/20180522205151509>

2.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감사관회의 개최

우선 국민권익위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 과제 점검, 국민참여·공개, 평가·환류 강화 등을 원칙으로 삼아, 50개 과제별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결과를 연말에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행실적 점검결과는 관계기관과 함께 공유하고, 계획대로 원활히 이행된 과제들은 ‘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가점으로 반영하여 과제 이행 실적과 평가를 연계한다. 또한 국민들이 반부패 정책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렴정책 국민 모니터단**’의 50개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부패·청렴정책의 제안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 등을 위해 공모를 통해 선발된 대학생, 회사원, 전문직, 공익제보자 등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50명)

이번 점검은 산하·피감기관 등 직무관련 기관이 감사·감독 기관 소속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하는 행위가 발견되고, 갑질·외유성 해외출장 등의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청원이 23만여명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점검과 해외출장 지원체계의 전면적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점검대상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을 받는 중앙부처·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1,483개소를 대상으로 5~7월간 실시되며,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금품등 수수 행위(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상 예산의 목적외 사용(제7조)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521&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18-05-01&2018-05-31&srchWord=%EA%B6%8C%EC%9D%B5%EC%9C%84>

최근 동향 및 소식

3. '자금세탁 위험평가 구축' 최종 단계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우정사업 본부와 카지노, 환전상 등에 대해서도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시스템 연도별 추진현황 (기관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은행 (16)	보험 (64) 외국계 은행 (39)	증권 (67) 상호금융 (3800)	저축은행 (79) 여신전문(카드8, 리스26, 할부금융20, 신기술금융24)	카지노(18) 환전상(1500) 우정사업본부(1) 금융지주회사(9) 소액해외송금업(20)

*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2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 5단계 구축사업 용역발주를 통한 사업자 선정에 돌입했다. 이번에 포함된 위험평가시스템 대상 업종은 카지노 18곳과 환전상 1500곳, 우정사업본부, 금융지주회사 9곳, 소액해외송금업자 20곳 등이다. 위험평가시스템은 해당 업체들의 자금세탁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해서 위험분석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이들의 자금세탁 위험과 대응조치들을 평가할 수 있는 위험평가 지표와 모델을 개발한다.

금융당국이 서둘러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에 나선 것은 자금세탁과 관련한 국가간 상호평가가 내년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주기적으로 회원국들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국가간 상호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금세탁 비협조국으로 지정돼 국가 신인도와 대외금융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반면에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으면 국가간 금융거래에서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금융회사 자금세탁 방지 위험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불법 금융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위험관리 수준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6000여개(상호금융 3800개, 환전상 1500개 포함)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위험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위험이 높은 분야를 집중 관리, 사각지대를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부터 은행을 시작으로 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했다. 2015년은 보험과 외국계 은행, 2016년은 증권사와 상호금융, 지난해에는 저축은행과 카드, 캐피탈, 할부금융 등이 대상이었다.

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하면 객관적 지표를 통해 전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수준을 평가해 위험이 높은 곳을 집중관리 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뒤늦게 위험평가체계에 편입됐다. 금융지주회사에도 위험평가체계를 구축하는내용으로 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 지난달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정부만 금융회사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에서도 정부가 배포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상호 연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FATF가 밝힌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FATF는 대상업종을 변호사와 부동산중개업소, 회계사와 귀금속상 등으로 확대하는 지침을 발표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77036

윤리경영 실천 사례

[지멘스] 투명 윤리경영

지멘스(Siemens)의 윤리경영활동은 인적자원개발, 다양성 지원, 구성원 존중, 대화, 산학협력, 공익활동, 문화예술 지원의 크게 7분야로 이루어지고 있다.

1. 인적자원개발

사내의 교육전문가와 각 업무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업교육팀을 설립하여 사업의 요구에 따라 직업교육과정 및 학위과정의 개발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멘스는 사무직, 기술직, IT분야, 학위과정 등 총 35개의 직업에 대해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 전 세계에서 13,000명의 청소년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 가운데 독일에서는 9,000명 정도가 직업교육을 받았다. 직업교육의 중점은 기술 직업에 두어지며 2001년 직업교육에 지출된 비용은 2억 유로에 달했다.

지멘스 직업교육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원적 교육과정이다. 이론과 실무의 이원시스템이 교육과정에 전이되어 학문적 측면의 이론적 내용과 기업의 실무적 측면이 연계되어 교육된다.

2. 다양성 지원

다양성은 사람들간의 문화, 국적, 성, 종교, 피부색, 연령 등의 차이를 수용하는 것이다.

지멘스는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성 촉진 및 관리 지도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세계 각국에서 각 나라의 필요에 따라 적응시켜 활용하고 있다. 지멘스는 다양성의 촉진 및 실천을 경영 관리 시스템에서 실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교육에도 통합하여 특히 관리자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3. 구성원 존중

안전과 건강은 전세계에서 지멘스의 가장 주된 관심사이다.

지멘스의 많은 구성원들, 구성원 가족들, 퇴직자들은 지멘스 여가활동 그룹에 속해 있다. 지멘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의 스포츠 활동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는데 이에는 회사의 스포츠 시설 지역 스포츠클럽에 대한 재정 지원, 영화, 사진 클럽, 연극모임, 오케스트라를 위한 공간 등의 제공 등이 있다.

지멘스는 가정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인사담당 중역은 E-비즈니스 시대에 있어서 앞으로 구성원들에 회사 인트라넷을 통하여 개인생활 및 가정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회사는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자신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근무시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위하여 지멘스는 여러 나라에서 육아업무 전문 상담기관 및 소개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독일 지멘스는 법적 연금보험과 개인생명보험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기업연금을 이미 1872년에 도입하였다. 또한 지멘스에서 구성원들에게 주식을 공여하는 것은 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구성원 참여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구성원에 대한 주식공여로 회사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직원의 기여를 인정하고 기업 목표에 대한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지멘스에서는 이미 1969년부터 구성원들에게 주식을 공여해왔다.

4. 대화

지멘스는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회, 정치적 집단, 포럼, 단체, 비정부기구(NGO)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5. 산학협력

지멘스는 선도적 기술기업으로서 대학 및 각급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수많은 대학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에서 350명 이상의 지멘스 구성원들이 대학에 출강하여 회사와 대학간의 좋은 관계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윤리경영 실천 사례

그 예의 하나가 뮌헨공대와 싱가포르, 홍콩, 방콕, 반둥(인도네시아)대학의 우수 학생 및 교수 교환프로그램인 LAOTSE이다.

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는 파트너대학에서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에 덧붙여 지멘스는 참여 학생들에게 4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인턴십을 제공한다.

독일에서 350명 이상의 지멘스 구성원들이 대학에 출강하여 회사와 대학간의 좋은 관계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본인이 담당하는 강의와 세미나에서 전공지식을 전달할 뿐 아니라 스스로 사회적 능력, 적응적 사고, 이문화에 대한 개방성 등 기업에 매우 중요한 모든 가치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역할 모델이 된다.

지멘스는 1997년 이래 독일외 전세계 대학들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지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 내용은 대학생 국제교류인데 지멘스는 특히 공학 및 자연과학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수한 대학생들은 외국대학에서 한 학기 장학금을 받게 되며 각국에서 지멘스 인턴십을 수료할 기회를 갖게 된다.

지멘스의 국제프로그램인 ‘지멘스대학생프로그램(SSP)’은 참여대학생들에게 지멘스에서 근무하거나 또는 인턴십을 수행할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에게 실무경험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6. 공익활동

지멘스의 사회적 활동은 특히 청소년들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지멘스는 사회적 활동에서 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의 사회직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의 모든 지멘스 사업장이 참여하여 ‘기업시민행동 자문위원회’(Corporate Citizenship Advisory Council)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는 지멘스의 사회적 공헌 및 지역사회 활동의 정책과 방향을 설계하는 내용으로 교육과 학습에 대한 지원, 구성원들의 사회적 활동, 공익기관 또는 국가의 지원 프로그램과의 공조 등이 있다.

미국 지멘스 구성원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는 자선활동, 건강 캠페인, 헌혈, 청소년 상담 등이 있다. 지멘스 구성원은 ‘First Robotics Competition’ 또는 ‘Junior Achievement’ 등의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들에게 기술과 경제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 내 지멘스 정보통신네트워크(INC)은 구성원들이 자원봉사하고 있는 자선기관이나 비영리공익기관에 연간 300불까지 기부를 해서 이들 구성원들에게 보상하는 “Dollars for Doers”를 시작하였다. 2001년 ICN 구성원들은 노숙자들에게 생필품을 제공하고, 장애학생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과학수업시간에 사용할 교육 보조물을 중고사무집기들로 만드는데 미국에서만 총 5,000시간의 개인시간을 투입하였다.

7. 문화예술 지원

전통적으로 지멘스는 활동하는 각 나라에서 기업은 그 사회의 한 부분이며 그 문화의 한 부분으로 스스로를 보고 있다. 지멘스는 각 재단과 각 지역 회사의 활동을 통해 박물관과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지멘스는 지멘스 예술프로그램으로 현대 예술 및 새로운 예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외 투명 윤리경영 사례(국외), “지멘스”, 486~490.

청렴 위반 사례

1 하자품 합격 처리 부당지시

모 지방청 A과장은 00납품업체로부터 기상장비 구입 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00납품업체의 장비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공무원 B에게 하자품에 대하여 합격 처리하도록 부당지시를 하였고, 부하공무원 B는 부당지시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명하지 않고 그대로 따름

시사점 :

- ① 업체로부터 납품 부탁을 받고, 하자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입하게 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므로 공무원 B는 부당 지시에 대하여 소명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을 해야 했지만 그대로 지시에 따랐으므로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위반임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2 특정업체 물품 구매 지시

모 중앙행정기관의 A과장은 사무실에 복사용지 등이 필요함을 알고 서무담당 B주무관을 불러 주로 공공기관에 문구류를 납품하고 있던 **OO문구와** 5백만원 상당의 복사용지 등 물품 구입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함. B주무관은 내부규정을 근거로 과장의 지시에 따르기가 곤란함을 소명 하였으나, 과장이 재차 같은 지시를 내리자 인사 상 불이익을 염려한 **나 머지** 마지못해 수의계약을 체결함

시사점 :

- ① 특정업체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A과장의 지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시한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아야 하고, 그래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나 B주무관은 소명에만 그치고 결국 부당한 지시를 따랐으므로,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위반임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지식마당

‘이익+사회공헌’ 공유가치를 창출하라

1. 문제의식

자본주의 체제가 곤경에 처했다. 최근 수년간 기업은 사회·환경·경제적 문제의 원흉으로 지목됐고, 기업이 공동체의 이익을 담보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여기에 더해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려면 할수록 모든 사회 문제의 책임을 기업에 돌리는 경향도 강해졌다. 기업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당성을 잃고 있다. 기업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정치 지도자들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제시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기업은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 버렸다.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에 있다. 이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치 창출에 대해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왔다. 가치 창출의 의미를 단기 재무 성과를 개선하는 것으로 좁게 정의했다. 반면 가장 중요한 고객의 요구를 외면하고 기업의 장기 성공을 좌우하는 보다 포괄적인 영향력을 무시했다. 기업은 자사 고객의 안녕을 고려하지 않았고 필수 자원의 고갈과 주요 협력업체의 생존문제, 자사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공동체의 경제적 고통에서 눈을 돌렸다. 또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건비가 싼 곳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믿었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에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약화시켰다.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 발전 사이에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성립했고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정책을 통해 제도화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유 가치(shared value)'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는 사회의 요구를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한다는 원칙이다. 기업은 사업 성공과 사회 발전을 연계시켜야 한다.

공유 가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자선 활동,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 경제적 성공도 함께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다. 기업 활동의 부수적 산물이 아니라 핵심 목적이 돼야 하는 공유 가치 창출은 경영 전략의 혁신을 가져올 주요한 원칙이다.

2. 새로운 솔루션

상품과 시장의 재구상

사회는 보건, 주택, 영양 개선, 노인 주거시설, 재정적 안정 강화, 환경 오염 완화 등을 필요로 한다. 이는 글로벌 경제 체제 속에서 충족되지 않은 가장 큰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간 기업은 수요를 분석하고 생산하는 법을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수요를 놓치고 있던 셈이다. '우리 제품이 고객에게, 혹은 고객의 고객에게 편익을 가져다 줄까?'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잊은 기업이 너무나 많다.

선진국에서는 사회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혁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는 방식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유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기업입장에서 공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시작점은 상품에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요구나 혜택, 문제 등을 알아내는 것이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기업은 기존 시장에서도 차별적인 입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이전까지 간과했던 새로운 시장의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다.

소외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을 새롭게 설계하거나 유통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소액 대출이 좋은 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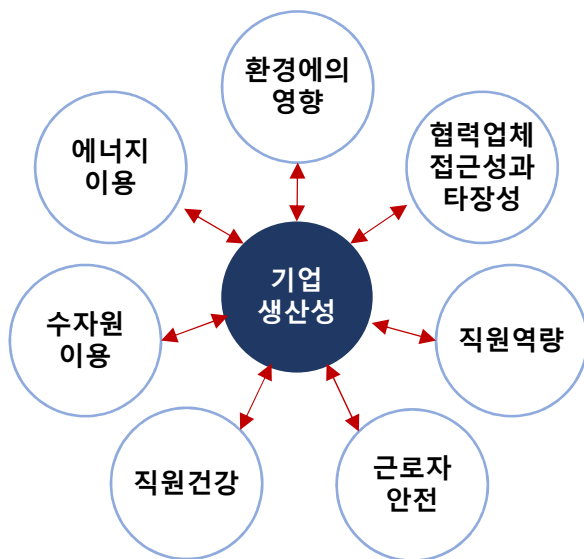
지식마당

개도국 시장에서 공급처를 찾지 못한 빈곤층 대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무담보 소액 대출 (microfinancing)은 현재 미국에서도 급성장을 거듭하며 그동안 충족되지 못했던 서민의 대출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가치 사슬의 생산성 재정의

기업의 가치 사슬은 천연 자원과 수자원 이용, 보건 및 안전, 근로 조건, 직장에서의 차별 철폐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사회적 문제는 기업 가치 사슬의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다 보면 공유 가치를 창출할 기회 또한 잡게 된다. '외부 사건'으로 분류되는 사회적 문제는 규제나 과세가 없어도 기업의 내부 비용을 증가시킨다. 제품 과다 포장이나 온실가스 배출도 사회의 환경 비용과 기업의 비용을 함께 증가시킨다.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 기업이 직원 복지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 직원과 가족들이 건강해지면서 사회는 이익을 얻고, 기업은 직원 결근과 그 결과 생기는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연관성이 가장 강한 분야들을 보여준다.



< 경쟁우위와 사회 문제의 연관 관계 >

그러나 지금까지 의료나 안전, 환경 보호, 직원 유지 및 역량 개발 등의 사회 이슈를 해결하며 기업의 생산성도 함께 발전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럼에도 '경쟁우위와 사회 문제의 연관 관계'를 보면 사회적 문제들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단기 비용 감축이 기업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경영 방식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현지 클러스터 개발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지원과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 생산성과 혁신은 '클러스터', 다시 말해 기업과 관련 사업, 협력업체, 서비스업체, 물류 인프라가 지리적으로 한곳에 집중된 지원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클러스터는 기업뿐 아니라 학계나 무역 협회, 표준 설정업체 등의 기관도 함께 포함한다. 빠르게 성장하며 성공을 구가하는 지역 경제를 보면 클러스터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생산성과 혁신, 경쟁력을 강화하는 걸 알 수 있다. 앞서 말했듯 역량을 갖춘 협력업체일수록 효율성 높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과의 협업은 보다 손쉽게 이뤄진다. 교육과 운송 서비스 등을 현지에서 지원받는 환경이 갖춰지면 기업의 생산성 또한 크게 개선된다.

공동체의 클러스터 조성을 돕고 싶다면 기업은 우선 협력업체, 유통 채널, 교육 기관, 교육 및 시장 제도 등의 영역에서 부족한 점이나 개선할 점을 찾아내야 한다. 그 다음에 기업의 생산성과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에 집중하고 기업 혼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과 협업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

기업은 비용 부담, 지원 요청, 역량 조합 과정에서 혼자 힘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무역 협회, 정부 기관, NGO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 내에서도 도움을 받기 위해 힘써야 성공적인 클러스터 개발이 가능하다.

Havard Business Review "Creating Shared Value" by Michael E. Porter and Mark R. Kramer

Quiz

1. 다음중 새로운 솔루션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상품과 시장의 재구상
- ② 가치 사슬의 생산성 재정의
- ③ 현지 클러스터 개발
- ④ 가치 창출의 의미를 단기 재무 성과를 개선하는 것으로 정의

2. 다음중 상품 시장의 재구상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공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시작점은 상품에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요구나 혜택, 문제 등을 알아내는 것이다.
- ② 사회는 보건, 주택, 영양 개선, 노인 주거시설, 재정적 안정 강화, 환경 오염 완화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③ 선진국에서는 사회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 ④ 소외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을 새롭게 설계하거나 유통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3. 다음중 가치 사슬의 생산성 재정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기업의 가치 사슬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관계에 있다.
- ② 사회적 문제는 기업 가치 사슬의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 ③ 사회적 문제들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 ④ 단기 비용 감축이 기업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한다.

4. 다음중 현지 클러스터 개발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협력업체의 지원과 기반 시설 없이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
- ② 교육과 운송 서비스 등을 현지에서 지원받는 환경이 갖춰지면 기업의 생산성 또한 크게 개선된다.
- ③ 기업은 비용 분담, 지원 요청, 역량 조합 과정에서도 혼자 힘으로 충분하다.
- ④ 무역 협회, 정부 기관, NGO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 내에서도 도움을 받기 위해 힘써야 성공적인 클러스터 개발이 가능하다.

과월호 Quiz 정답 및 해설

- 1. 답 ④ 가치 창출의 의미를 단기 재무 성과를 개선하는 것으로 정의
- 2. 답 ② 사회는 보건, 주택, 영양 개선, 노인 주거시설, 재정적 안정 강화, 환경 오염 완화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3. 답 ① 기업의 가치 사슬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관계에 있다.
- 4. 답 ③ 기업은 비용 분담, 지원 요청, 역량 조합 과정에서도 혼자 힘으로 충분하다.

관련 행사

1. 캬코 경영진, 청렴경영 서약식 개최

한국자산관리공사 '캬코'는 28일 부산 본사 BIFC 캬코마루에서 문창용 사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과 부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경영 메시지 선포 및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약식에서는 청탁금지법과 임직원 행동강령,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 등과 관련해 국회 의정연수원 김대현 겸임교수의 특강도 진행했다.

28일부터 1주일간 진행되는 캬코 청렴윤리주간에는 임직원 청렴서약, 상임감사 청렴강의, 청렴 콘텐츠 공모전, 유관기관 합동 청렴 가두 캬페인, 시민 초청 청렴 열린강좌 등 부산지역 유관 공공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도 펼친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76376>

2. 진주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캬페인' 열려

2018 국민권익위원회 선정 프로그램인 '당당하게 달리자! 청렴맨' 행사가 오늘(24일) 진주시 진주성 일원에서 스포츠와 퀴즈 형식을 접목한 야외 행사로 열렸습니다.

주YMCA 와 경남 청렴 클러스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행사는 반부패와 청렴문화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참가자들이 게임 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이 '반부패 윤리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9 일 밝혔다.

<http://www.knn.co.kr/168900>

3. 문경교육지원청, 반부패·청렴다짐식 가져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은 5월 15일(화) 제37회 스승의 날 기념 교육장기 교직원 배구대회 행사를 맞이하여 문경대학교에서 문경시 소재 초·중·고, 사업소, GVCS 및 문경대학교 교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다짐식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 다짐식은 전 교직원이 청렴을 실천하겠다는 서약을 통해 반부패 의식을 제고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청렴 공직자로서 솔선수범 할 것을 다짐하기 위한 것이다.

<http://www.anews.com/detail.php?number=1318471&thead=01r01>

독자 의견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advisor@jcons.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